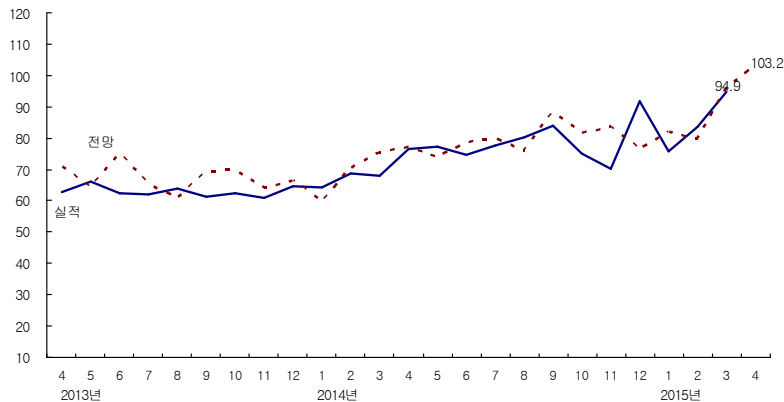


2015년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3월 CBSI 11.4p 상승한 94.9 기록
2개월 연속 상승, 5년 6개월 내 최고치 기록

- 2015년 3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4 상승한 94.9를 기록함.
- CBSI는 지난 2월에 주택경기 회복,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7.7p 상승한 83.5를 기록해 2월 지수로서는 12년만에 처음으로 80선을 회복했음.
- 3월에도 CBSI는 큰 폭으로 상승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수가 2009년 9월(96.1) 이후 5년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함.
- 이는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최근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주택경기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가운데, 통상 3월에 흑한기가 끝나 발주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도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상대적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활발한 대형업체, 중견업체 지수가 전월비 각각 15.4p, 12.5p 상승한 것을 볼 때도 최근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택경기 회복이 건설기업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로 판단됨.

- 다만,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100)에 못 미쳐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아직 호황국면에 접어들지는 못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업체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업체들의 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대형 및 중견업체의 상승폭이 두드러짐.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15.4p 상승한 115.4를 기록하여, 4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상회하였음. 특히 115.4는 2002년 5월(142.9) 이후 12년 10개월 내 최고치임.
- 중견업체 지수도 전월비 12.5p 상승하여 103.1을 기록했음. 중견업체 지수가 기준선을 넘어선 것은 2009년 9월 이후 5년 6개월만임.
-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4.5p 상승한 61.5에 머물렀음. 대형, 중견업체지수와 마찬가지로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가장 낮아 체감경기의 격차가 좀 더 확대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4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2월	3월		4월
											실적	전망치	전망
총 합	77.2	74.5	77.7	80.2	83.9	74.9	70.4	91.7	75.8	83.5	94.9	95.9	103.2
규모별	대형	92.9	92.3	100.0	92.3	108.3	92.3	100.0	100.0	100.0	115.4	107.7	138.5
	중견	74.1	73.3	75.8	83.3	80.0	78.8	70.0	71.9	90.6	103.1	100.0	93.8
	중소	62.5	55.1	53.8	62.5	59.6	50.0	45.1	76.0	51.9	61.5	77.6	72.5
지역별	서울	85.1	83.7	90.2	89.2	95.4	85.4	85.8	94.4	86.2	98.0	107.9	119.8
	지방	65.7	60.8	58.8	67.4	67.0	59.6	47.5	87.9	60.7	62.2	75.1	77.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5년 4월 CBSI 전망치는 3월 실적치 대비 8.3p 높은 103.2를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건설업체들이 4월에는 건설경기가 3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또한, 4월 전망치 103.2는 2009년 10월 전망치(110.8) 이후 5년 6개월만

에 처음으로 기준선을 넘어선 것으로서 다수의 건설업체가 향후 건설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음.

- 하지만 대형업체의 전망치가 실적치 대비 23.1p 높은 138.5인데 비해, 중견업체 전망치는 실적치 대비 9.3p 낮은 93.8을 기록해, 기업 규모별로 향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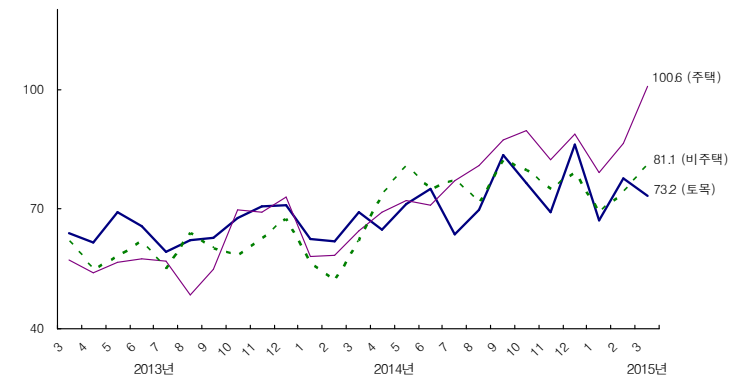
- 지역별로 3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보다 9.9p 상승한 107.9, 지방 업체가 12.9p 상승한 75.1을 기록해 서울과 지방 업체 모두 체감경기의 침체 수준이 개선됨.
- 서울업체 지수가 기준선(100.0)을 넘어선 것은 2010년 10월 102.2 이후 4년 5개월만에 처음이며, 서울업체 지수 107.9는 2010년 7월 114.6 이후 최고치임.

2015년 3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2.4p 상승한 87.2 기록

- 2015년 3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4p 상승한 87.2를 기록함.
- 공사 물량 지수는 지난 2014년 12월에 94.4를 기록해 4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에 전월 대비 23.5p 하락한 70.9를 기록했음.
- 이후 2월에는 전월보다 13.9p나 상승한 84.8을 기록 2월 실적으로는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
- 3월에는 전월보다 2.4p 상승한 87.2로 3월 실적으로는 13년 내 가장 높은 수치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감.
-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주택공사 물량의 회복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가운데, 통상 3월에 흑한기가 끝나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됨.

- 공종별로 토목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종에서 전월보다 지수가 개선된 가운데, 특히 주택물량 지수의 상승이 두드러짐.
-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2월에는 전월 보다 10.4p 상승한 77.5로 공종별로는 가장 상승폭이 컸으나, 3월에는 전월 대비 4.3p 감소한 73.2로 공사물량이 전월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14.2p 상승한 100.6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을 넘어섬. 주택 물량지수가 기준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3년 6월 100.1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택 물량이 전월 보다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예년에 비해 매우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비주택 물량지수 또한, 전월 보다 7.4p 상승한 81.1을 기록해 지수가 전월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임.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과 중견업체의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기록한 반면, 중소업체 지수는 2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0을 기록함. 비주택물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기록한 가운데, 주택이 130.8를 기록해 양호하였음. 다만 토목이 84.6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됨.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2.5p 상승한 100을 기록함. 주택물량지수가

전월보다 25.9p 나 상승한 106.5로 중견업체의 전체 물량지수 상승을 주도함. 비주택과 토목은 각각 81.3, 75.0으로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토목 물량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소기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6.3p 감소한 57.7을 기록함. 토목과 주택이 각각 57.7, 58.7을 기록하였으며 비주택 또한 58.8로 모든 지수가 50선 하반에 그침. 대형과 중견업체에 비해서 물량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7.2	100.0	100.0	57.7	98.1	70.7
	전망	101.4	123.1	106.3	70.6	114.3	81.7
토목	실적	73.2	84.6	75.0	57.7	78.4	65.2
	전망	84.2	100.0	78.1	72.5	88.4	77.8
주택	실적	100.6	130.8	106.5	58.7	120.7	70.2
	전망	107.1	146.2	100.0	69.6	128.0	75.3
비주택	실적	81.1	100.0	81.3	58.8	91.8	64.9
	전망	98.0	123.1	96.9	70.0	109.0	81.2

주 : 실적은 2015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4월 예측지수임.

- 2015년 4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3월보다 14.2p 상승한 101.4로 전망해 3월보다 4월에 공사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통상 3월보다 4월에 물량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가운데, 여전히 주택물량 상황이 양호하고 비주택 물량 상황 또한 개선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주택 물량지수가 107.1로 3월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3월 실적치 81.1보다 16.9p나 증가한 98.0로 물량 침체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토목 물량지수는 84.2로 공종별로 가장 수치가 낮아 상대적으로 물량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상황 다소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가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지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4.9, 103.9를 기록해 두 지수 모두 기준선을 상회함.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인력 및 자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7.5, 93.2을 기록했음. 인건비 지수는 비교적 어려운 가운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저물가,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작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90선을 상회하고 있음.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97.8, 82.3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7.8	92.3	106.5	94.2	96.4
		전망	96.4	100.0	100.0	88.2	99.0
	자금조달	실적	82.3	76.9	87.5	82.7	80.2
		전망	79.3	76.9	84.4	76.5	77.4
인력	수급	실적	104.9	115.4	100.0	98.1	109.0
		전망	100.9	107.7	100.0	94.1	105.5
	인건비	실적	87.5	100.0	83.9	76.9	89.7
		전망	84.3	100.0	75.0	76.5	88.4
자재	수급	실적	103.9	100.0	106.3	105.8	103.6
		전망	102.7	100.0	106.3	102.0	103.6
	비용	실적	93.2	107.7	84.4	86.3	96.4
		전망	92.9	107.7	87.5	81.6	99.0

주 : 실적은 2015년 3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4월 예측지수임.